

중소·중견기업 2면

중견사 절반,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 90% 정규직 선발

〈신입+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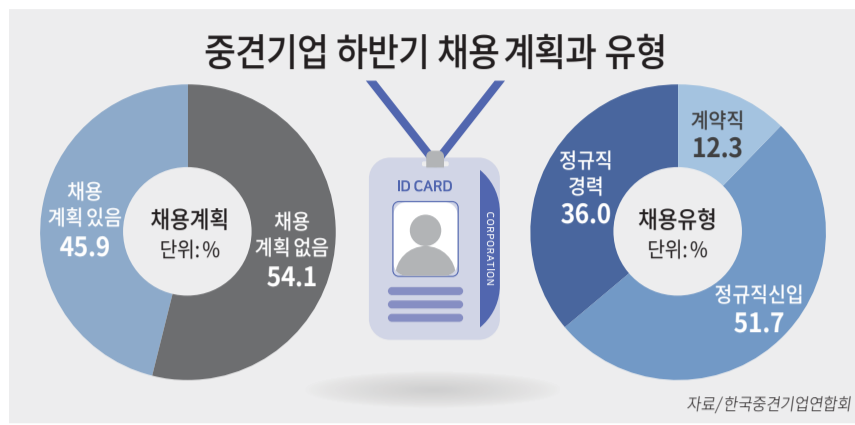
중견련, 기업 412곳 고용 전망 채용기업 84% 규모 늘리거나 유지 65% 대졸초임 연봉 4000만원 미만

‘산업의허리’인 중견기업들이 국내외 경기 침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서도 채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10곳 중 8곳 이상은 하반기에 상반기 대비 신규 채용 규모를 ‘유지’하거나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10곳 중 5곳 가량은 하반기에 신규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중견기업 10곳 중 6곳은 대졸 초임이 4000만원 미만이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중견기업 412개사를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중견기업 고용 전망 조사’를 실시해



11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5.9%가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밝힌 중견기업의 84.1%가 상반기 대비 신규 채용 규모를 ‘유지’(52.9%)하거나 ‘확대’(31.2%)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채용 규모를 ‘줄이겠다’고 답한 기업

은 15.9%에 그쳤다. 하반기 신규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중견기업의 30.5%는 ‘사업확장 및 신사업 추진’을, 15.3%는 ‘실적 개선 및 수요 증가’를 이유로 꼽았다. 45.8%는 ‘기존 인력 이탈 충원’을 주요 채용 요인으로 답했다. 상반기 대비 채용 규모를 줄이겠다

고 응답한 중견기업들은 ‘실적 악화 및 수요 감소(23.3%)’, ‘적합한 인재 채용 애로(13.3%)’ 등을 꼽았다.

계획하고 있는 신규 채용 유형은 ‘정규직 신입(51.7%)’이 가장 많고 ‘정규직 경력(36.0%)’, ‘계약직(12.3%)’이 뒤를 이었다. 이런 가운데 중견기업의 절대다수인 87.9%가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직군별로는 ▲기술·생산직(37.6%) ▲연구·개발직(18.4%) ▲사무·관리직(16.0%) ▲영업·마케팅직(13.1%) 순으로 채용 애로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인력 운영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사업 확대(29.4%) ▲세제지원 확대(21.4%) ▲고용 유연성 제고(18.4%) ▲인력양성 프로그램 강화(12.6%) ▲산업단지 및 지방기업인프라 조성(10.9%)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3월 이후 월별 채용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반에 가까운 중견기업이 하반기 신규 채용을 진행하겠다고 답한 것은 경제 역동성 유지 측면에서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채용 확대를 견인하기 위해선 단기적인 고용 지원 정책은 물론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역량을 제고할 노동·환경·세제 등의 전반적인 구조 개혁 작업을 지속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견기업의 64.5%는 대졸 초임 연봉이 4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간별로 ‘3500만~4000만원’은 26.9%, ‘3000만원~3500만원’은 37.6%로 집계 됐다. 4000만원 이상은 28.1%, 5000만원 이상은 3.6%로 각각 나타났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소 93% “여름휴가 계획”... 62% “휴가비는 안줘”

중기중앙회, 기업 500곳 대상 조사 77% ‘개인연차’ 24% ‘별도 연차’ 38% 휴가비 지급... 평균 56만원

중소기업의 92.8%가 올해 여름휴가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곳 중 2곳은 별도의 휴가비 지급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여름휴가 계획 조사’ 결과를 11일 내놨다.

결과에 따르면 여름휴가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비율은 92.8%로 집계됐다. 여름휴가 방식에 대해선 ‘개인 연

차휴가 활용’(76.5%)을 한다는 기업이 ‘별도의 연차휴가 부여’(23.5%) 대비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별도로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평균 ‘3.6일’이다.

응답 기업의 62.3%는 임직원에게 별도의 휴가비(지원금) 지급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지급 계획이 있는 기업(37.7%)의 별도 휴가비(지원금)는 평균 ‘56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단체 휴무를 시행하는 기업은 37.3%로 조사됐다. 단체 휴무 시기는 ‘7월 말’(53.2%), ‘8월 초’(41.6%) 순으로 많았다. 단체 휴무 기간은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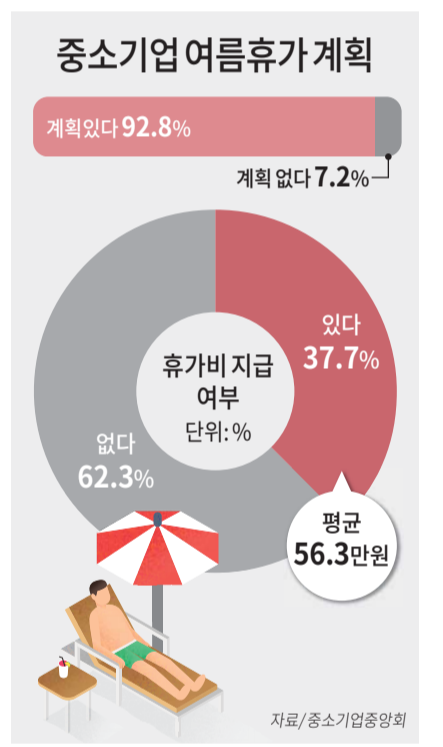
일’(67.1%), ‘5~6일’(19.1%) 순으로 나타났다.

여름휴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의 여름휴가 계획 부재 이유는 ‘연중 수시 휴가 사용’(63.9%), ‘인력부족’(19.4%) 등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여름휴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휴가비 지원·휴가비용 법인세 공제 등 재정 지원’(67.6%)을 가장 많이 꼽았다.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는 ‘여행 바우처 제공, 여행비세제 혜택 등 여행비 지원’(60%), ‘서비스 품질 향상, 관광지 물가 안정 등

관광 품질 개선’(16.2%), ‘숙박시설, 교통편 등 인프라 개선’(11.4%) 순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2023년 연평균 근로시간은 187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42시간보다 130시간 이상 길고 6번째로 근로시간이 많은 상황”이라며 “특히 국내 여행을 통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및 내수경기의 진작효과 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휴가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CJ대한통운, 94년 물류업 외길... 수주확장 기반 마련

CJ대한통운, 사업장 700여곳 축구장 1600개 규모와 맞먹어 3자물류·택배 등 인프라 갖춰

CJ대한통운이 사업 추가 유치를 통한 물류 영역 확장을 위해 국내 업계 최대의 물류영업 자산을 심층 활용하고 있다.

11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각지에서 운용하는 보유 및 임차 물류센터와 택배 터미널, 그외 사업장 부지와 건물 면적 총합이 전국 700여 곳, 약 1130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물류기업 최대 규모로 축구장 1600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크기이자 여의도 면적의 1.4배 수준이다. 여타 국내 대표적 물류기업들과 대비시 2~3배 크다.

CJ대한통운은 94년간 물류업 외길을 걸어온 전문기업으로 충실한 물류인프라를 구축해왔다. 주요 내역으로 전국 각지의 3자물류 인프라가 있다. CJ대한통운은 소비재(CPG), 유통, 제약, 패션뷰티, 이커머스 등 5개 산업군별 기업에 3자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CJ대한통운이 전국 각지에 보유한 3자물류, 택배 등 관련 물류 인프라와 첨단 물류설비들.

있다. 이를 위해 전국에 195개의 물류허브와 거점센터들을 운영 중이다.

또 택배업계 1위 기업으로서 촘촘한 택배 인프라도 갖고 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곤지암메가허브를 비롯한 14개의 허브터미널과 276개의 서브터미널을 운영한다. 최근 소형택배 분류 전문 시설인 안성MP허브 등도 구축했다. 또 작년 신규가동한 이천과 용인 풀필먼트센터 3개소 등 이커머스 관련 시설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같은 전국적인 인프라와 물류 전반에 걸친 사업역량 덕분에 기업간 물

류(B2B), 소비자 배송(B2C)은 물론 전 과정에 걸친 풀라인업 서비스(B2B2C)까지 모두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연평균 500억원 가량의 무형자산 투자를 집행하는 등 기술투자에도 남다른 관심을 지속하고 있다. 실제 스마트 패키징, 물류현장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첨단기술의 개발은 이같은 무형자산 투자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CJ대한통운 인프라 투자 전략의 핵심은 미래를 내다본 ‘선제 대응’이다. 대표적 사례가 2016년 ‘곤지암 메가허브

터미널’ 착공이다. 곤지암 메가허브는 코로나19로 유통업체 주문량이 20% 이상 급증했을 당시 이를 무리없이 소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3자물류 분야에서도 일찍부터 산업군별 상품 특성에 맞춰 차별화된 운영 역량을 갖추는데 집중했다.

아울러 빅데이터, 인공지능(AI)와 물류로봇 등 첨단기술과 설비를 갖춘 풀필먼트 센터 확충도 같은 맥락이다. 이커머스 셀러들이 고효율 물류를 통한 비용합리화에 집중할 것을 내다본 앞선 투자를 진행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지난해 말 기준 CJ대한통운의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커머스 고객사는 그 전 대비 4배 가량 급증했다. 고객사 카테고리도 명품, 패션, 식품, 펫용품 등으로 다변화됐다.

CJ대한통운 윤진 한국사업부문 대표는 “압도적 물류 인프라를 통한 규모의 경제와 타사 대비 3~5년 앞선 기술력에 의한 효율성 향상이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면서 “차별화된 3자물류 역량과 지속적 혁신을 통해 고객사의 성장과 소비자 편의 증대에 한층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기아·한국닛산 등 15만6740대 리콜

국토부, 총 32개 차종 대상

국토교통부는 기아와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포르쉐코리아, 한국토요타 자동차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2개 차종 15만674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아쏘렌토 13만9478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오는 15일부터 리콜에 들어간다. 닛산의 Q50 2.2d 등 8개 차종 8802대는 프로펠러 샤프트 제조 불량으로 17일부터 리콜을 진행한다.

현대 일렉시티 등 2개 차종 2887대는 인슐레이터 내구성 부족에 따라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지적됐다. GV70 2782대는 엔진점화장치 연결볼트 제조 불량으로 1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포르쉐 911 카레라 4GTS 카브리올레 등 17개 차종 2054대는 차선 유지 기능 작동 중 운전자에게 시각신호를 알리지 못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7일부터 리콜을 시작한다. /안שמ 기자 smahn1@